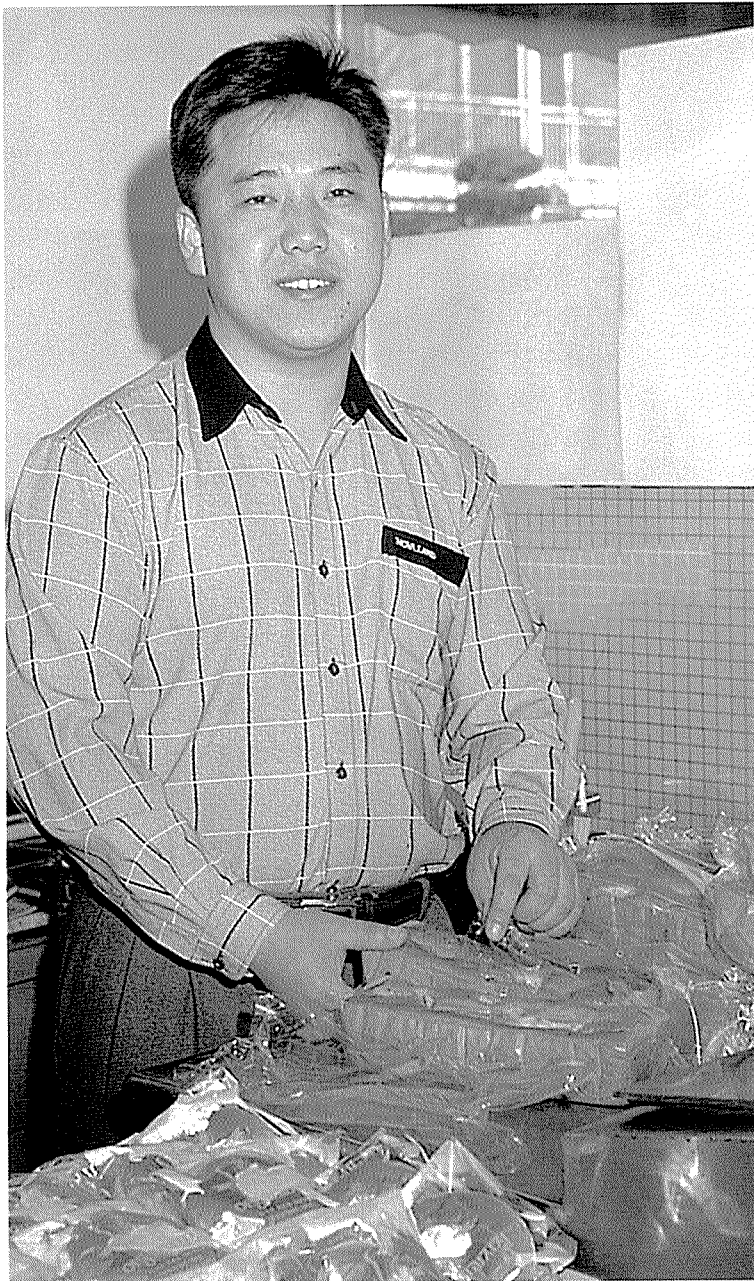


후회없는 인생을 선택한 행운아

등촌동 이동희과자점 이동희

시시각각의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는 시간이 삶의 본질이라면, 아마도 이동희씨는 인생의 고비마다 비교적 최선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 불려도 좋을 것이다. 몇 차례의 중대한 인생의 고비에서 그가 내린 선택들은 서른 셋의 이른 나이에 지금처럼 '알짜배기'로 소문난 제과점을 장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상영되어 큰 관심을 모은 「슬라이딩 도어즈」는 순간 순간마다 무심코 되풀이되는 '선택'의 가치(價値)를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다. 직장에서 해고당해 집으로 돌아가던 여주인공은 지금 막 문이 닫히고 있는 지하철 앞에서 '이 열차를 탈 것인가, 다음 차를 기다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선택에 따라 그녀의 인생은 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생각해보면 이렇듯 빈번하고 무의식적인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짐짓 태연한 얼굴로 가장하고 있지만 '차라리 그때...했더라면' 하는 후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실수인가. 이 선택의 결과 조차도 이미 정해진 운명인지 모르지만 "그래, 결심했어!"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

고 1 중퇴 이후 제과업계와 인연

시시각각의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는 시간이 삶의 본질이라면, 아마도 이동희(33)씨는 인생의 고비마다 비교적 최선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 불려도 좋을 것이다. 몇 차례의 중대한 인생의 고비에서 그가 내린 선택들은 서른 셋의 이른 나이에 지금처럼 '알짜배기'로 소문난 제과점을 장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10평 남짓한 규모와는 달리 인근의 경쟁점들이 부러워 할 만큼 장사 잘 되기로 소문난 등촌동 「이동희과자점」은 지금껏 그가 선택해온 길들이 그다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평화롭던 학창 시절이 채 끝나기도 전, 생각지도 않았던 제과점 견습공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동희씨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 82년의 일이다. 갑작스러운 부친의 운명 이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과 취업의 갈림길에 서게 된 그는 생각 끝에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가난한 산골 살림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아닌란 걸 알고 있었지요. 어린 마음에도 일찌감치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기반을 다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또래의 친구들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 살던 누나의 소개로 을지로의 한 제과점에 출근하게 된 것은 그해 겨울.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객지 생활의 외로움과 눈꺼풀까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던 초급 기술인의 빠듯한 시간들이었다. 더욱이 빵집 아저씨라면 막연히 마음씨 좋고 깔끔한 신사처럼 생각했던 그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말보다 주먹이 앞서서 데 익숙해진 몇몇 선배들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이었다. 정작 그 자신은 3년 후 그곳을 그만둘 때까지 뻘 한 번 맞은 일이 없었지만, 이 때 느꼈던 실망감은 후에 그가 냉동차 운전기사로 이직을 고려했을 만큼 깊은 상처가 되었다.

스물 일곱에 제과점 오픈 ‘사장’ 꿈 이뤄

만일 그에게 오랫동안 환상처럼 품어왔던 꿈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음만은 편했다던 짧은 운전기사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제과기술인으로 돌아온 건 순전히 ‘내 이름을 내건 제과점을 갖고 싶다’는 미련을 버릴 수 없어서였다. 스스로 선택한 제과인이라는 직업을 통해 어떻게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이동희씨에게 그 꿈은 오랫동안 유일한 희망이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월급의 반을 저축할 만큼 독기를 부렸던 것도,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 스물 일곱에 직접 제과점을 차려 독립한 것도 ‘내 장사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그 만큼 강했기 때문이었다.

“일류 기술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유능한 제과점 사장이 되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꿈꾸는 모습이 있잖아요. 저의 경우엔 이름만 대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유명제과점을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91년,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구리시 뉴욕제과는 개업

자금이 모라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던 조그마한 점포였다. 하지만 버르고 버르던 사업이라 그런지 제과점 운영은 시작부터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웠고 덕분에 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던 5,000여 만원의 빚을 불과 8개월만에 모두 청산할 수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아내 역시 갓 태어난 첫 아이를 형님댁에 맡겨두고 가게일에 매달려야 할만큼 바쁜 생활이었지만 이 곳에서의 작은 성공은 이동희씨에게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해준 기회였다.

SBS 공개홀 뒤편의 대림아파트 상가로 가게를 옮겨온 건 지난 95년, 서울로 진출하기 위해 점포를 물색하던 중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선택 결심을 굳히게 된 이곳은, 1,100여 세대의 고급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소비력이 꾸준한 유망 상권이다. 입주 초기, 주변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은근히 걱정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점들은 하나 둘 문을 닫고 말았다. ‘특별한 비법이 있을리 있겠느냐’는 겸손함과 달리, 장사에 대한 그의 감각은 남다른 편이다. 아니, 그것은 사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라기 보다는 변함없는 성실성이 가져다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인생을 빛낸 젊은날의 선택

취업을 위해 상경한 고향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주저 없이 제과업을 권한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온 그가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는’ 제과업을 유망 직업에서 빼놓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기술인 생활을 시작한 선후배들이 벌써 15명이나 돼 명절날 고향에라도 내려가게 되면 온 동네가 온통 빵집 얘기 뿐이다. 최근 그는 또다시 서울 근교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 분점을 오픈하기 위해 부쩍 분주한 날들을 맞이하고 있다. 등촌동 이동희베이커리가 안정 궤도에 올랐으니 재차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이렇게 한 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는 17살 때의 ‘현명한 선택’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재**

〈글/이종환〉